

격려사

이주민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의 시작에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사에서 여러분들과 한국의 사부대중이 웃는 얼굴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뜻 깊은 일로 여겨집니다.

한국 불교는 승속과 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법문을 듣고, 불법의 공덕이 골고루 미치도록 잔치를 즐기며 덕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무차대회’라 하며 그 전통을 되살려 마련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은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곧 ‘나’임을 알게 해주셨으며, 또 다른 ‘나’인 ‘남’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고 부딪치고 어우러져 굳건히 서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갖는 의미는 더욱 선명해 집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옳다는 믿음이 참으로 어리석은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수많은 인연을 이어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의지하여 평화와 행복을 이루며, 상생의 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정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빼어난 가치

이자 인성의 중심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뜻을 깊이 새기며 이웃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이 땅을 향기로운 세상으로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주민 불자 여러분이 부처이고, 사부대중 여러분이 부처이며, 생명과 자연 모두가 부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주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전심전력으로 바로 설 때, 불교는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이주민 불자와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무차대회는 그러한 맥락 위에 있습니다. 오늘 무차대회는 이주민 불자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을 잡고, 함께 공양하며, 불자로서 한 식구라는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우리가 바로 삶의 주인이라고 자각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연대와 협력의 손을 잡고 평화와 행복의 길에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주민 불자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오늘 이 자리가 이주민 불자 여러분과 한국의 사부대중이 한 식구로 더불어 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6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